

싸우는 그 경계에 와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딘가 틀림없이 덕성이 보상받는 곳이 있게 마련이네. 비르지니는 지금 행복하다는 말일세. 아아! 그녀가 천사들의 거주지로부터 자네에게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던 때처럼 자네에게 이렇게 말할 걸세. 아아 폴, 인생은 하나의 시련에 불과한 거야. 나는 자연과, 사랑과, 덕성의 법칙에 충실했음이 밝혀졌어. 나는 진척의 뜻에 따르기 위해 바다를 건넜고, 서약을 지키기 위해 부를 포기했어.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 하늘에서는 내 생애가 부족함 없이 아주 충만하다고 인정해주었어. 나는 가난과, 중상모략과, 폭풍우로부터, 타인이 고통을 겪는 광경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어떤 악도 이제 더 이상 내게 미치지 못해. 그런데도 오빠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 나는 빛의 입자처럼 순수하고 영원히 변치 않아. 그런데 오빠는 나를 이생의 밤으로 다시 부르고 있어! 아아 폴! 아아 나의 사랑! 행복했던 지난날을 기억해봐, 아침부터 천국에서 내려주는 기쁨을 맛보고, 저 바위산 꼭대기의 태양과 함께 눈을 뜨고, 그 햇살을 담백 안고 우리의 숲을 온통 누비던 나날들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황홀을 느꼈어. 우리의 순진무구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시각이 되어 여명이 퍼뜨리는 풍부한 색깔을 만끽할 수 있길, 모든 것을 다 맡는 후각이 되어 우리 식물들의 향기를